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5일(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해양기획팀장 서미숙 ☎ 440-4821 · 담당자 이근왕 ☎ 440-4822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이달의 해양유물은?

- 인천시, 매월 이달의 해양유물 소개, 10월은 ‘유리부표’ -

- 해양유물 소장가치를 시민께 알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범시민 참여 분위기 독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 전시콘텐츠 확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이달의 해양유물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매월 해양유물 소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기증 시민참여 운동’의 홍보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매월 선정한 유물 1점을 토대로 그 소장가치를 알림으로써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독려하고자 계획됐다.

이달 10월의 해양유물은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리부표’로 부표는 부이(Buoy) 또는 부구(浮具)라 하며,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구나 닻과 같은 물속에 있는 도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후 스티로폼으로 대체됐다가 현재는 해양오염 등을 고

려해 친환경 부표로 바뀌는 추세이다.

유리부표는 2010년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기증운동 당시 기증받은 자료로 기증자의 외조부가 1950년대 정치망 어선으로 조업활동을 하며 사용하였던 것이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유리부표와 같이 어민들이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 사라져 가는 해양자료 기증을 통해 우리시 해양역사를 후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인천 해양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담은 해양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032-440-4822) 또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044-200-52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원 부지 27,601㎡, 건축연면적 17,318㎡,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시설, 교육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수장(收藏) 시설로 구성된다.

전시공간에는 서해안 해운·항만의 변화와 발전사 기록·전시, 다양한 섬의 특성이 담긴 해양민속사관, 영흥도선·대부도선 등 고선박 연구전시관 등이 포함되어 서해안의 장구(長久)한 해양스토리를 담은 연구, 보존, 전시,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붙임> 사진자료

참고1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유리부표』



현대 | 지름 41.2cm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2010년 구대민 기증